

#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기간 : 2022.2.21(월) ~ 2022.2.25(금)

제공일시 2022 03 04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 1. 세계시장서 탄소중립 후퇴 움직임 감지…한국도 '재검토' 목소리 높아져

-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유류세 인하 검토와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화석연료 투자 지속 등 세계 각국의 탄소중립 움직임이 다소 주춤하는 모습 포착
- 극단적인 에너지쇼크 등으로 인해 에너지안보에 위기를 맞으며 화석연료의 가치가 상승해 화석연료 기업들이 에너지전환의 최대 수혜자로 떠오르는 중. 신재생에 투자했는데 거꾸로 화석연료의 가격이 오르는 그린에너지의 역설도 발생
- 극단적인 에너지 믹스로 인한 역효과를 방지할 수 있도록 화석연료를 일방적으로 악으로 규정하는 국내 탄소중립 정책 또한 재정립될 필요 대두

(전기신문, 2022.02.24.) 윤대원 기자  
<https://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1393>

### 2. 정부, 인도네시아와 핵심광물·전기차 협력 확대한다…MOU 체결

- 지난 22일 정부와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가 '한-인도네시아 경제협력위원회'에서 핵심광물 협력을 포함한 총 5개의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 이를 기반으로 핵심광물, 전기차 생태계 조성 등의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확대하기로 함. 또, 안정적인 핵심광물 공급망을 위한 협력 및 전기차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력도 강화해 나갈 방침
- 이외에도 '한-인니 에너지포럼' 등의 민관협력채널을 통해 재생에너지 협력을 강화하고 LNG인프라, CCS 협력 등을 발굴할 계획

(연합뉴스, 2022. 2. 22) 권혜진 기자  
<https://www.yonhapnews.co.kr/news/2022/02/22/13-400379p.html>

### 3. 한중, 3년 만에 환경협력 공동위…정부, 미세먼지 대응 공조 강조

- 약 3년 만에 열린 '제24차 환경협력 공동위원회'에서 한국과 중국이 미세먼지와 해양 쓰레기 등 환경 분야 현안에 대해 논의함
- 한국 측은 대기오염이 국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국경을 넘어오는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오염 대응을 위한 양국 공조를 강조함
- 해양오염과 관련해서는 역내 해양환경 및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협력을 발전시키고, 블루 카본 개발 사업을 신규 협력사업으로 채택하기로 합의함

(연합뉴스, 2022. 2. 22) 김경윤 기자  
<https://www.yonhapnews.co.kr/news/2022/02/22/17-020549p.html>



### 1. 미래 자원 ‘블랙파우더’ 확보한 SK...폐배터리 재활용 밸류체인 구축한다

- SK에코플랜트가 폐IT전자기기 재활용 전문기업 ‘테스(TES)’를 인수하면서, **SK이노베이션의 폐배터리 희소금속 추출 기술과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보임
- 관련 업계는 이번 인수로 SK에코플랜트가 ‘**블랙파우더**’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의 밸류체인을 구축했다고 분석함

(시사저널, 2022. 2. 27) 서지민 기자  
<http://www.sjjournal.com/news/article.html?no=25287>

### 2. 신한카드, 빅데이터로 ESG 컨설팅사업하고, 신한금융은 첫 ESG 정량화 실천

- 신한카드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탄소배출지수를 활용하는 ESG 컨설팅 사업**을 국내 금융권 최초로 시작
- 자사의 소비데이터를 바탕으로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 비자와 함께 만든 ‘**신한 그린인덱스**’를 개발해 하반기부터 ESG컨설팅 사업에 나섬
- 신한그린인덱스는 **소비자가 산 물건의 탄소배출 정도를 지수화**한 것으로, ESG에 관심있는 기업이나 기관, 지자체에 판매할 계획
- 한편, 신한금융그룹은 **ESG 전략을 ‘정량화’**하기 위해 그룹 대표·임원의 ESG 평가지표로 활용하는 ‘SVMF(사회적 가치 측정 체계-Social Value Measurement Framework)’를 사용해 그룹 전체에서 추진하는 93개 ESG 사업의 사회적 효과를 측정할 예정

(한경, 2022. 2. 23) 이인혁 기자  
<http://www.hankyung.com/finance/article/20220223046>

### 3. 12년 만에 태양광 접은 LG...로봇·블록체인 등 신성장 사업 가속

- LG전자가 오는 6월 30일, 2010년 뛰어든 **태양광 패널 사업을 정리할 계획**
- 지난해 스마트폰 사업 철수에 이은 두 번째 사업 중단 결정으로, **비주력 사업은 신속히 정리**하는 한편, **블록체인과 로봇 사업 등 신성장 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는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선택과 집중**’ 전략이라는 분석

(서울신문, 2022. 2. 23) 박성국 기자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22302015&cat=lg\\_group\\_inq-mover](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22302015&cat=lg_group_inq-mover)

### 4. 하나금융, 2050 탄소중립 위해 카이스트와 맞손

- **하나금융지주가 ‘카이스트’와 손잡고 탄소중립을 위한 ESG 경영 강화**에 나섬
- 하나금융은 카이스트와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변화 문제 해결 ▲저탄소 에너지경제로의 전환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목표로 하는 ‘**ESG 미래전략**’ 업무협약을 체결
- ESG 신기술 개발 및 가치창출을 목표로 글로벌 탄소중립 정책 기여 등 **산학협력을 추진**할 계획

(이데일리, 2022. 2. 24) 서대용 기자  
<https://www.edaily.co.kr/news/article.htm?article=202202240201120016&cat=ec&cl=ec-2022022402011>

# Weekend ESG Insight

이슈 검색기간 : 2022.2.21(월) ~ 2022.2.25(금)

제공일시 2022 03 04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 ESG 공시 증가로, 사회적 소송 리스크도 덩달아 증가

- 블룸버그 그린은 엑손모빌, 쉘, PG&E 등 화석연료 기업을 상대로한 기후 소송이 지난 몇 년간 ESG 소송의 주를 이뤘지만, 이제는 환경을 넘어 사회(Social) 영역으로 소송 리스크가 확대될 것이라고 23일(현지시간) 보도
- 피치 레이팅스(Fitch Ratings)의 은네카 치케오비(Nneka Chike-Obi) 지속가능금융 담당 이사는 “근로 조건과 공급망에 대한 정부와 투자자들의 철저한 검토가 사회 영역에 대한 기업 공시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전망
- 더불어, 치케오비 이사는 “데이터 유용성이 개선됨으로써 이해관계자가 기업 공시 내용과 기업 행동 일치 여부를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불일치가 확인될 경우 그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이 증가하게 된다”고 지적. 또 그녀는 “기후는 가장 시급한 실존적인 위협이지만 수많은 이슈들이 규제망에 들어왔다”며 사회 영역에 대한 소송 리스크 확대 가능성을 강조
- 사회 영역 소송은 광범위한 사회 이슈와 얽혀 있으며, 파장이 커질수록 소송 빈도도 높아지게 될. 피치(Fitch)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이 본격화된 2020년 이후 4200건의 소송이 의료 산업계에서 발생하는 등 근로 관련 소송이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또한, 미투운동(#MeToo)으로 촉발된 여성 직장 차별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성차별 소송 또한 증가 추세
- 인종 차별에 대한 소송도 증가. 이달 초, 테슬라는 캘리포니아주 공장에서 흑인 근로자에 대한 광범위한 폭사 행위로 고소를 당함. 공장 시설 관리자였던 마크 케이지는 재직 당시 사내 인종차별이 심하다는 민원을 여러 차례 제기했지만 묵살됐고, 결국 본인이 해고 조치를 당했다며 캘리포니아주 앨러미다 카운티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 케이지가 제출한 고소장에는 “캘리포니아 테슬라 공장 화장실 대부분에는 나치 문양을 포함해 인종 차별적인 상징과 문장이 적혀 있다”며 그러한 분위기 아래서 근로자들이 인종차별을 일삼았다는 주장이 담김. 더불어 그는 테슬라가 전기차 제조 과정에서 안전 수칙 또한 위반하고 있다고도 밝힘. 비현실적인 생산 목표를 세워, 고객과의 약속을 이행한다는 명분으로 근로자 안전을 위협하곤 한다는 것
- 그러나 이 인종 차별과 관련된 근로 소송은 지난해에도 유사한 소송이 연달아 진행된 바가 있어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측면에서 파장이 컸음. 지난해 10월, 테슬라는 프리몬트 공장에서 인종차별을 당했다는 엘리베이터 운영 직원에게 1억3700만 달러(1652억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음. 2020년 첫 번째 다양성 보고서를 발표한 테슬라는 근로자의 60%, 관리직의 33%가 소수인종이라고 밝히며, 자사 DNA에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을 내재시킬 것이라는 목표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반복되는 직장 내 인종 차별 소송이 발목을 잡고 있음
- 근로자가 제기하는 소송 외에도 투자자가 사회적 영역에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블룸버그 그린은 지적. 치케오비 이사는 최근 몇 년 동안 성장세에 있는 지속가능성 채권을 둘러싸고 소송이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 기업이 채권으로 조달한 자금을 소수집단을 위한 교육이나 창업 등에 사용하겠다고 지속가능한 채권을 발행하고 있는데,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않을 경우 투자자로부터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임. 지속가능성 채권이 인기를 끌고 발행 규모 또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소송 이슈도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

(Bloomberg Green, 2022.2.23) Sajjel Kishan 7  
<http://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2-02-23/esg-legal-landscape-expected-to-expand>

(조선비즈, 2022.2.23) 이용성 기자  
<https://biz.chosun.com/news/economy/2022/02/23/20220223BNNK4C9V92S3A3864>